

【논문】

초월논리학은 일반논리학에 우선하는가?

강 은 아

【주제분류】 서양근대철학, 논리학, 형이상학

【주요어】 일반논리학, 형식논리학, 초월논리학, 대상 관련성, 표상, 개념, 지성의 규칙, 인식, 사고

【요약문】 이 논문에서 필자는 일반논리학과 초월논리학의 본성과 관계를 밝힘을 통해 초월논리학이 일반논리학에 우선한다는 주장을 반박하고자 한다. 초월논리학이 일반논리학에 우선한다고 주장하는 입장에서는 초월논리학과 일반논리학의 목표와 재료는 공통적이거나, 초월논리학이 일반논리학보다 더 근본적으로 다루기 때문에 초월논리학이 일반논리학에 우선한다고 주장한다. 이들은 첫째, 초월논리학이 순수한 인식의 원리를 묻는 데에 반해 일반논리학은 묻지 않으며, 둘째, 개념을 공통적으로 다루나 초월논리학만이 개념의 출처를 물으며, 셋째, 초월논리학의 분석적 통일이란 원리가 일반논리학의 종합적 통일이란 원리보다 더 근본적이기 때문에 초월논리학이 일반논리학보다 더 우위에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는 일반논리학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주장이다. 일반논리학은 초월논리학과 목표가 전혀 다르기 때문에, 같은 재료를 다룰 수도 없다. 첫째, 일반논리학은 대상 인식의 필수적인 규칙을 다루는 초월논리학과는 달리 사고의 필수적인 규칙을 다루며, 둘째, 일반논리학은 표상을 개념으로서 다루지 않으며, 셋째, 일반논리학의 원리는 분석적 통일이 아니다. 따라서 초월논리학이 일반논리학보다 우위에 있다고 주장할 근거가 없다. 만일 둘을 우위라는 관점에서 비교해야 한다면 일반논리학이 초월논리학보다 더 보편적이고 필수적인 규칙이라는 점에서, 일반논리학이 초월논리학보다 기초적이다.

I. 들어가며

『순수이성비판』에서 칸트는 인간이 어디까지 지식을 얻을 수 있고 어디부터는 지식을 얻을 수 없는지, 인간 지식의 가능성과 한계를 정하고자 한다. 그런데 이를 정하기 위해서는 인간의 이성 능력을 알아야 한다. 그래서 칸트는 인간의 이성능력을 비판하는 작업에 착수하고, 여기에 ‘초월논리학(Transzendente Logik)’이란 이름을 붙인다.

‘초월논리학’의 서문(A50/B74-A64/B88)에서 칸트는 초월논리학이 무엇인지를 밝힌다. 서문에서는 초월논리학이 여타의 논리학에서 차지하는 위치와, 일반논리학과 차이가 다뤄진다. 그렇지만 이러한 서문에도 불구하고 오늘날까지도 초월논리학의 본성이 무엇인지, 초월논리학과 일반논리학의 차이가 무엇인지, 초월논리학과 일반논리학의 관계는 무엇인지에 대한 논란이 종종 제기되고 있다.

필자는 본고에서 초월논리학과 일반논리학의 관계를 밝히고, 이를 통해 일반논리학과 초월논리학의 본성을 분명히 하고자 한다. 특히 초월논리학과 일반논리학의 관계에 대한 논의에서 두 논리학 중 어떤 논리학이 우선하는가 하는 문제가 제기되어 왔었다. 필자는 이 문제를 검토함을 통해 두 논리학 간의 관계를 밝히도록 하겠다.

본고는 먼저 초월논리학이 일반논리학에 우선한다는 주장을 명료화 하고(Ⅱ), 초월논리학과 일반논리학의 본성을 밝혀 이 주장의 의미를 검토하고 필자의 의견을 밝히도록 하겠다(Ⅲ, Ⅳ).

Ⅱ. 우선성의 기준과 의미

박진은 형식논리학, 즉 일반 순수 논리학과 초월논리학의 관계 문제는 “칸트 연구자들 사이에 서로 상이한 견해 차이가 있어온 매우 난해한 문제 중의 하나요, 초월철학의 사활이 걸린 매우 중요한 문제”¹⁾라고 하며, 일반논리학과 초월논리학의 우위 문제를 적극적으로

제기한다. 그렇다면 박진은 어떤 기준으로 일반논리학보다 초월논리학이 우선적이라고 주장하가?

박진은 초월논리학이 일반논리학보다 더 ‘기초적’이어서 초월논리학이 일반논리학보다 우위에 있다고 주장한다. 그래서 우선성은 기초적이란 말과 같은 의미이다. 물론 우선성을 기초로 설명한다고 해서 우선성이 더 설명되는 것은 아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뒤에 더 다뤄질 것이다. 그러나 어쨌든 박진은 초월논리학은 두 가지 점에서 일반논리학보다 기초적이라고 주장한다.

첫째, 일반논리학의 원리가 일반논리학 내에서는 더 이상 해명되지 않지만 초월논리학에서는 적극적으로 해명되기 때문에 초월논리학이 일반논리학보다 기초적이다. 일반논리학의 원리는 모순율이고, 초월논리학의 원리는 통각의 종합적 통일이다. 일반논리학에서는 모순율을 자명한 것으로 놓고 더 이상 설명하지 않는 데에 비해, 초월논리학에서는 모순율의 형이상학적인 기초를 물어서 철학적으로 근거 지운다.²⁾ 그래서 초월논리학은 일반논리학의 원리를 설명하나, 일반논리학은 초월논리학의 원리뿐만 아니라 자기 원리조차도 설명하지 못한다. 따라서 박진이 첫 번째로 우선성을 판단하는 ‘기준’은 어떤 논리학의 원리가 다른 원리를 설명해주느냐이다.

둘째, 일반논리학은 개념의 출처를 도외시하지만, 초월논리학은 개념의 출처를 고려한다는 점에서 초월논리학이 일반논리학보다 더 기초적이다. 박진에 따르면 두 논리학은 같은 재료를 사용해 지성의 규칙을 다룬다. 그 재료란 개념이다. 그런데 두 논리학은 상이한 목표에 따라 같은 재료를 각각 상이하게 사용한다. 두 논리학은 “순수 사고의 形式을 다룬다는 점에서는 서로 일치”하나, 순수 사고의 형식에 접근하는 방법이 다르다.³⁾ 일반논리학은 “개념의 내용적 출처를 도외시하고 형식적 관계에만 주목”⁴⁾하는 데에 반해, 초월논리학은 개념의

1) 박진, 『일반논리학과 초월논리학-칸트의 개념론과 판단론을 중심으로』, 『대동철학』 19, 2002, p.162.

2) *ibid.*, p.163.

3) *ibid.*, p.164.

내용적 유래와 대상 인식의 문제에 주목한다. 그래서 초월논리학은 순수 인식의 재료가 되는 개념의 유래를 묻는다는 점에서도, 같은 재료를 사용하면서도 이를 묻지 않는 일반논리학보다 우위에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박진이 우선성을 판단하는 두 번째 기준은 어떤 논리학이 더 재료를 깊이 탐구하는가 하는 깊이이며, 이 깊이는 재료의 출처를 따지는지 여부에 따라 판가를 난다.

요컨대, 박진에 따르면 두 가지 점에서 일반논리학보다 초월논리학이 우위에 있다. 첫째, 일반논리학과 초월논리학은 “순수 인식의 형식”을 다룬다는 점에서는 공통되나, 일반논리학은 그 원리를 더 이상 묻지 않는 데에 반해 초월논리학은 그 원리를 반성한다는 점에서 초월논리학이 더 우위를 가진다. 둘째, 일반논리학과 초월논리학은 개념이란 재료를 사용한다는 점에서는 공통되나, 일반논리학은 그 재료의 기원을 묻지 않는 데에 반해, 초월논리학은 그 기원을 묻는다는 점에서 초월논리학이 일반논리학보다 우선한다.

스마트도 초월논리학이 일반논리학보다 우위에 있다고 주장한다. 그에 따르면, 일반논리학의 원리는 분석 판단의 원리인 분석적 통일이며, 초월논리학의 원리는 종합 판단의 원리인 종합적 통일이다. 그러나 분석적 통일은 종합적 통일을 전제한다. 따라서 분석적 통일을 원리로 갖는 일반논리학보다 종합적 통일을 원리로 갖는 초월논리학이 더 기초적이라는 것이다.⁵⁾

필자는 박진과 스마트의 초월논리학이 일반논리학보다 우선한다는 주장의 세 가지 근거가 모두 설득력이 없다고 생각한다. 뒤에서 다루겠지만 간단히 그 이유를 밝히면 이리하다. 박진의 첫 번째 근거와 관련해서, 일반논리학과 초월논리학은 순수 인식이나 순수 사고의 형식을 다룬다는 공통점을 갖지 않는다. 그보다는 일반논리학은 사고의 형식을, 초월논리학은 순수 인식의 형식을 재료로서 다룬다는 점에서

4) 박진, 『개념과 징표-일반논리학과 초월논리학의 관계 연구(I)』, 『철학사상』 22, 서울대 철학사상연구소, 2006, p.182.

5) Smart, Harols H. “Two Views on Kant and Formal Logic”, *Philosophy And Phenomenological Research*, 16-2, 1955.

전혀 다르다. 박진의 두 번째 근거와 관련해, 일반논리학과 초월논리학은 개념을 다룬다는 공통점도 가지지 않는다. 그보다 일반논리학에서는 모든 것을 순전히 표상으로서만 다뤄서 직관과 개념을 구분하지 않고, 초월논리학에서는 직관을 개념과 구분해 순수한 개념만을 다룬다. 또한 스마트의 근거도 설득력이 없다. 일반논리학은 분석 판단만 다루지 않으며, 초월논리학도 종합판단만 다루지 않는다. 오히려 일반논리학의 틀 내에서는 분석판단과 종합판단을 구분할 수 없다. 이에 반해 초월논리학은 분석 판단과 종합 판단을 모두 다룬다. 일반논리학은 모든 판단의 내용을 도외시하고 판단을 추론 관계에서의 타당성이란 관점에서만 다루기 때문에 분석판단과 종합판단의 구분이 무의미하다.

필자가 스마트와 박진의 주장과 근거에 동의하지 않는 근본적인 이유는 필자가 일반논리학을 스마트와 박진과 전혀 다르게 이해하고 있기 때문이다. 박진이나 스마트는 초월논리학이 일반논리학의 기초가 된다는 주장의 근거로 일반논리학이 순수 인식의 형식을 다룬다는 것과 분석판단의 원리라는 것과 개념을 다룬다는 것을 꼽는다. 하지만 여기엔 일반논리학이 대상 관련성을 가지는 논리학이라는 것이 전제되어 있다. 그러나 필자가 보기에 일반논리학은 대상 관련성을 전혀 가지지 않는 논리학이다. 게다가 최소한 대상 관련성을 가지는 논리학만이 순수 인식의 형식을 규칙을 주고 분석 판단의 원리가 되고 개념도 다룰 수 있기 때문에, 일반논리학은 절대로 순수인식의 형식의 규칙을 줄 수도 없고 분석판단의 원리가 될 수도 없고 개념을 다룰 수도 없다.

대상 관련성을 가진다는 것은 한 판단에서 개념이 대상과 관련된다는 것이다. 여기서 대상이 무엇이나에 대해서는 너무나 많은 논란이 있고, 별도의 긴 논의가 필요하다. 그러나 이 논의에서 그보다 중요한 것은 판단에서 표상이 대상과 관련되기 위한 **조건**이 무엇이나는 것이다. 칸트는 표상을 대상과 직접 관련되는 직관과 간접적으로 관련되는 개념으로 나눈다. 그래서 어떠한 개념도 정의상 대상과 직접 관련될 수 없으며 직관만이 대상과 직접 관련된다.⁶⁾ 판단에서 개

념은 직관을 통해서만 대상과 관련될 수 있다. 따라서 어떤 표상이 직관과 관련되기 위해서는 그 판단에 지성 능력만이 아니라 감성 능력까지 동원되어야 한다. 즉, 어떤 판단이 대상 관련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시공간적으로 가리킬 만한 어떤 것이 있어야 한다. 이처럼 초월논리학은 판단의 대상 관련성 규칙을 다루는 학문이다.

이제부터 필자는 일반논리학이 대상 관련성을 절대 가질 수 없고, 가져서도 안 되는 논리학이어야 하는 두 가지 이유를 밝히겠다.

Ⅲ. 일반논리학과 초월논리학의 대상 관련성

일반논리학과 초월논리학은 목표하는 바가 다르기 때문에 대상 관련성도 다르다. 그리고 목표가 달라짐에 따라서 논리학의 규칙에 사용하는 재료도 달라진다. 이 절에서는 일반논리학과 초월논리학의 목표와 재료의 차이를 밝히도록 하겠다. 먼저 두 논리학의 목표의 차이부터 살펴보자.

1. 일반논리학과 초월논리학의 목표

아래 인용은 처음으로 초월논리학의 필요성이 제기되는 부분이다.

“일반 논리학은 인식의 모든 내용, 다시 말해 인식의 대상과의 모든 관계맺음을 도외시하고, 인식들 상호간의 관계에서의 논리적 형식, 다시 말해 사고 일반의 형식만을 고찰한다. 그런데 (초월적 감성학이 밝혀 주듯이) 순수한 직관뿐만 아니라 경험적 직관도 있으므로, 대상에 대한 순수한 사고와 경험적 사고 사이의 구별도 있을 수 있다. 이런 경우에 인식의 모든 내용을 도외시하지는 않는 논리학이 있을 수도 있겠다. 순전히 대상에 대한 순수 사고의 규칙들만을 내용으로 갖는 그런 논리학은 경험적 내용을 갖는 그런 모든 인식은 배제할 것이기 때문이다. [...] 이에 반해 일반 논리학은 인식의 이런 근원에는 관여

하지 않고, 표상들이 애당초 선행적으로 우리 자신 안에 있는 아니면 단지 경험적으로 주어지든 간에, 그 표상들을 지성이 사고할 때 그것들을 상호 관계시키는 데 사용하는 법칙들에 따라서만 고찰한다. 그러므로 일반 논리학은 표상들이 어디에서 유래하든 그 표상들에 적용될 수 있는 지성 형식만을 다룬다.”(A55-6/B79-80, 밑줄은 필자)

논리학은 “지성 규칙들 일반의 학문”(A52/B76)이다. 다시 말해, 논리학은 우리에게 지성의 ‘규칙’들을 제공해주는 학문이다. 일반논리학과 초월논리학도 논리학이므로 지성의 규칙을 제공해 준다. 그런데 두 논리학은 제공하는 지성 규칙의 영역이 다르다. 일반논리학은 지성 일반에서도 “사고 일반의 형식”의 규칙들만을 제공하며, 초월논리학은 “대상에 대한 순수 사고의 규칙들”을 제공한다. 다시 말해, 일반논리학의 목표는 **사고 일반**의 규칙을 주는 것이며, 초월논리학의 목표는 **대상에 대한 순수 사고**의 규칙을 주는 것이다. 다시 말해, 일반논리학은 모든 사고의 필수적인 규칙을 주고, 초월논리학은 사고 중에서도 대상에 대한 순수한 사고의 규칙만 준다. 이렇게 두 논리학은 제공하는 규칙의 영역이 다르다. 일반논리학은 사고(Denken)되기 위해서 필수적인 규칙을 제공하는 논리학이며, 초월논리학은 순수한 대상 사고이기 위해서 필수적인 규칙을 제공하는 논리학이다. 그렇다면 “사고”와 “순수한 대상 사고”의 차이는 무엇인가?

칸트는 대상 사고와 인식(Erkenntnis)을 같은 의미로 사용한다.⁷⁾ 따라서 순수한 대상 사고는 순수한 인식과 같은 의미이다. 순수한 인식이란 경험적 인식과 대비되어, 감각(Sinnlichkeit)이 섞이지 않은 인식을 말한다.⁸⁾ 그러므로 일단 일반논리학은 사고의 일반 규칙을 제공하고 초월논

7) 칸트는 『순수이성비판』의 재판 머리말에서 인식함(erkennen)과 사고함(denken)을 구분한다. 인식함이란 대상을 인식함이고, “그것을 위해서는 내가 그것의 가능성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경험 가능한 것만이 인식될 수 있다. 반면에 사고함은 무엇이나 사고함이며, “단지 자기모순에 빠지지만 않는다면, 다시 말해 모든 가능한 것의 총합에서 나의 개념에도 한 대상이 대응하는가 하지 않는가를 내가 책임질 수 없다 하더라도, 내 개념이 단지 가능한 사고이기만 하다면” 모두 사고이다.(BXXVI) 따라서 사고는 모순 없이 생각할 수만 있으면 된다.

8) 칸트는 순수(rein)한 것과 경험적인(empirisch) 것을 구분하는 기준으로 감

리학은 순수한 인식의 일반 규칙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다르다.

초월논리학은 순수한 인식의 일반 규칙을 제공하는 학문이다. 순수한 인식이란 경험적이지 않은 대상에 대한 사고이다. 또한 초월논리학은 우리 경험(Erfahrung) 중에서 후험적이지 않은, 즉 감각(Sinnlichkeit)의 공으로 돌릴 수 없는 선험적인 구조를 해명하려는 구상에서 출발한다. 그래서 초월논리학의 목표는 우리가 대상을 인식할 때 반드시 사용해야 하지만, 경험에서 비롯되지는 않은 규칙을 제공하는 것이다. 이처럼 초월논리학은 경험에 대한 논리학으로서, 인식을 다루기 때문에 대상 관련성을 갖는 논리학이다.

이에 반해 일반논리학은 인식 판단이 아닌 ‘사고’를 다룬다. 사고는 우리가 모순 없이 생각할 수 있기만 하면 성립한다. 일반논리학의 관심은 어떤 것이 사고로서 성립하기 위해서 반드시 갖추어야 할 규칙이 무엇인지 아는 것이다. 따라서 만일 어떤 것이 일반논리학의 규칙을 벗어난다면 우리는 그것을 아예 생각할 수도 없다. 그래서 칸트는 일반논리학을 두고 “그것들이 없으면 도무지 아무런 지성사용도 있지 않을, 단적으로 필수적인 사고의 규칙들을 내용으로 갖고, 그러므로 지성이 지향하는 대상이 어떠한 것이건 간에 그 대상들의 차이는 돌봄이 없이, 지성사용에 관계한다.”(A52/B76)고 말한 것이다. 그러므로 일반논리학은 대상 관련성을 가질 수 없다.

두 논리학이 갖는 규칙이 달라짐에 따라 기준(Kanon)도 달라진다. 일반논리학의 기준은 어떤 것이 사고인지 아닌지를 판가름하며, 초월논리학의 기준은 어떤 것이 인식인지 아닌지를 판가름한다. 일반논리학의 기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것이 사고되는지 아닌지를 가릴 수 있으며, 초월논리학의 기준을 통해서 어떤 것이 우리에게 대상 세계에 대한 참이나 거짓에 대한 지식을 줄 수 있는지를(비록 충분치는 않지만) 가릴 수 있다.

그러므로 초월논리학은 우리에게 무언가가 인식이 되기 위해서는

각(Sinnlichkeit)을 내놓는다. 감각이 섞이면 경험적이며, 감각이 섞이지 않으면 순수하다는 것이다. 이 구분에 대해서는 A20-1/B34-5, A50-1/B74-5를 참고하라.

대상과 관련돼야 한다는 규칙을 주지만, 일반논리학은 이런 규칙에 무관심하다. 일반논리학은 무언가가 사고가 되기 위해 만족시켜야 할 일련의 규칙들만 제공하면 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일반논리학과 초월논리학은 설령 같은 문장을 다룰지라도, 전혀 다른 방식으로 접근한다. 일반논리학에서는 문장의 구문론적인 규칙이나 추론의 타당성에만 관심이 있다. 반면에 초월논리학에서는 그 문장이 대상 관련성을 가지는지, 그래서 우리에게 세계에 대한 앎을 줄 수 있는지 여부에 관심이 있다. 그래서 예컨대 일반논리학에서는 “상겨무리는 거겨무리이다.”라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문장과 “모든 물체는 가분적이다.”라는 문장의 차이를 발견할 수 없으므로, 둘 다 정언판단이란 형식으로 분류한다. 왜냐하면 두 문장의 구문론적 규칙이 동일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초월논리학에서 보면, 뒤의 문장은 인식이고 앞의 문장은 사고이긴 하나 인식은 아니다. “상겨무리는 거겨무리이다.”는 대상 관련성이 없기 때문이다. 대상 관련성이 없는 문장은 대상 세계에 대한 아무런 지식도 줄 수 없다.

덧붙여, 문장이 대상 관련성을 가진다는 것은 그 문장이 참이나 거짓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문장이 참이나 거짓일 수 있으려면 그 문장과 대어 맞는지 틀린지 판단할 만한 대상이 있어야 한다. 그래서 대상과 문장이 일치하면 참이고, 일치하지 않으면 거짓이다.⁹⁾ 반면에 대상과 아무런 관련성이 없는 문장은 참도 거짓일 수도 없기 때문에 인식도 아니다. 예컨대 “상겨무리는 거겨무리이다.”란 문장은 그에 견줘서 맞춰볼 대상이 없으므로, 참도 거짓도 안 된다. 초월 논리학은 바로 이러한 대상 관련성에 대한 규칙을 다루는 논리학인 것이다.

요컨대, 일반논리학과 초월논리학은 지성의 규칙을 제공하는 학문이라는 점에서는 공통되지만, 전자의 목표는 우리에게 사고가 되기

9) 참의 명목적 정의는 “인식과 대상의 합치”이다.(A58/B82) 인식은 그에 맞춰 조회할 만한 대상이 있어야만 비로소 참이거나 거짓일 수 있다. 그래서 대상 관련성이 없으면 참도 거짓도 불가능하다. 따라서 일반논리학에 쓰이는 명제들은 대상 관련성이 없으므로 참이나 거짓이란 관점에서 다루질 수가 없다. 기껏해야 추론의 타당성을 따지는 데에 쓰일 수는 있겠지만 말이다.

위한 필수적인 규칙을 제공하는 것이며 후자의 목표는 우리에게 인식 되기 위한 필수적인 규칙을 제공하는 것이라 점에서 차이가 난다. 두 논리학이 제공하려는 규칙의 범위가 달라짐에 따라, 일반논리학과 초월논리학의 목표도 전적으로 달라지는 것이다. 사고가 되기 위해서는 생각할 수만 있으면 되지만, 인식이 되기 위해선 반드시 대상 관련성을 가져서 참이나 거짓이 가능해야 하니 말이다. 그러므로 박진이 말한 것처럼 두 논리학은 ‘순수 사고의 형식’을 다룬다는 공통점을 갖지 않는다. 초월논리학만이 ‘순수 사고의 형식’을 다룬다.

그러나 한 가지 의문이 남는다. 칸트는 일반논리학도 순수 일반논리학과 응용 일반논리학으로 나누고, 전자를 형식논리학이라 부른다.¹⁰⁾ 그런데 이처럼 칸트가 형식 논리학을 순수한 논리학이라 여겼다는 것은 형식논리학이 사고 일반이 아니라 순수한 사고의 규칙만을 제공한다는 반증이 아닌가? 순수 일반논리학은 경험적 사고의 형식이 아니라 순수한 사고의 형식을 제공하는 논리학이니, 대상 관련성을 가진다고 봐야 하지 않는가? 만일 이 의문이 맞다면, 나의 주장은 틀릴 것이다.

결론부터 말하면, 일반논리학의 순수성과 초월논리학의 순수성은 그 의미가 전혀 다르다. 일반논리학이 순수하다는 것은 지성 사고에서 경험적인 상황이나 조건들을 모두 도외시한다는 것이지, 감각이 섞이지 않은 순수한 대상을 다룬다는 의미가 아니다. 그 증거로, 칸트가 순수 일반논리학에서 도외시해야 할 것으로 열거하는 감각, 상상력, 선입견의 원천들 등¹¹⁾은 사고하는 주관의 주관적인 조건들뿐이다. 반면에 초월논리학이 순수하다는 것은 초월논리학이 다루는 대상

10) 칸트는 일반논리학을 순수논리학과 응용논리학으로 나누고(A52-3/B77), 전자인 순수 일반논리학을 형식논리학이라 부른다(A131-B170).

11) “일반 논리학은 무릇 순수 논리학이거나 응용 논리학이다. 전자에서는 우리는 그 아래에서 우리 지성이 활용되는 모든 경험적인 조건들을 도외시한다. 가량 감각의 영향, 상상의 유희, 기억의 법칙들, 습관·경향성 등의 힘, 그러니까 또한 선입견의 원천들, 더 나아가 그로부터 어떤 인식이 생기기도 하고, 또는 위조될 수도 있는 그런 모든 원인들을 도외시한다. 왜냐하면 이런 것들은 지성이 적용되는 특정한 상황에서만 지성과 관계하고, 이 상황을 알기 위해서는 경험이 요구되기 때문이다.”(A52-3/B77)

이 순수하다는 것이다. 앞서 밝혔듯이, 초월논리학에서는 대상을 경험함에 있어서 감각을 도외시켰을 때, 대상을 인식하는 데에 필수적인 규칙을 다룬다. 반면에 순수 일반논리학은 순수한 조건에서, 순수한 내용이든 경험적인 내용이든 일체의 내용을 도외시킨 사고들의 규칙을 제공하는 논리학이다. 그러므로 순수 일반논리학이 ‘순수 인식의 형식’을 다루므로 대상 관련성을 갖는다는 주장은 틀렸다.

2. 일반논리학의 재료와 초월논리학의 재료

지금까지 필자는 일반논리학과 초월논리학이 각각의 목표에 따라 그 영역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살펴보았다. 일반논리학의 목표는 사고 일반이란 영역에서, 사고 일반의 필수적 규칙을 제공하는 것이며, 초월논리학의 목표는 대상 인식이란 영역에서 대상 인식의 필수 규칙을 제공하는 것이다.

목표가 달라짐에 따라, 규칙에 쓰이는 재료도 달라진다. 일반논리학과 초월논리학은 공통적으로 문장을 다루며, 문장에는 단어(Wort)들이 쓰일 것이다. 그런데 일반논리학은 단어(Wort)들을 개념(Begriff)으로서가 아니라 표상(Vorstellung)으로서만 다루며, 표상을 직관과 개념으로 구분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일반논리학에서 직관과 개념을 구분하는 것은 무의미하기 때문이다. 오직 초월논리학에서만 직관과 개념을 구분할 수 있으며 이 구분이 유의미하다. 이제부터 그 이유를 살펴보자.

“이에 반해 일반 논리학은 인식의 이런 근원에는 관여하지 않고, 표상들이 애당초 선형적으로 우리 자신 안에 있든 아니면 단지 경험적으로 주어지든 간에, 그 표상들을 지성이 사고할 때 그것들을 상호 관계시키는 데 사용하는 법칙들에 따라서만 고찰한다. 그러므로 일반 논리학은 표상들이 어디에서 유래하든 그 표상들에 적용될 수 있는 지성 형식만을 다룬다.”(A55-6/B80, 밑줄은 필자)

인용에서 칸트는 일반논리학이 표상의 유래를 고려하지 않는다고 말한다. 이에 비해 초월논리학은 표상의 유래를 반드시 고려한다. 초월논리학에서는 표상을 대상과 직접 관계하는 직관(*Anschauung*) 표상과 대상과 매개적으로 관계하는 개념(*Begriff*) 표상으로 나누며, 직관이 없는 인식은 대상 인식이 아니라는 규칙을 우리에게 준다. 그러므로 초월논리학의 표상은 개념이든 직관이든 그 유래가 고려된 것이다. 반면에 일반논리학에서는 표상의 유래를 고려하지 않는다. 이러한 일반논리학의 표상은 칸트 이전의 근대 철학에서 중요하게 다뤄졌던 ‘관념(*idea*)’과 비슷한 의미로, 정신에 떠오르는 모든 것을 폭넓게 통칭하는 것이다.

이처럼 초월논리학의 표상은 대상과 관련해서 유래가 고려된 것이다. 표상 중 대상과 무매개적으로 관련되는 표상이 직관이고, 대상과 매개적으로 관련되는 표상이 개념이다. 이처럼 직관과 개념은 대상 관련성이란 기준을 통해 구분된 것이다. 그래서 관련될 만한 대상이 없으면 직관과 개념의 구분이 무의미해질 뿐더러, 개념이나 직관이란 말을 쓸 수도 없다.¹²⁾ 이렇게 초월논리학에서 직관과 개념을 구분하는 이유는 이 구분이 대상 인식 여부를 판가름하는 기준이기 때문이다. 어떤 문장이 대상 인식인지 아닌지 알아보려면, 그 문장이 직관을 포함하거나 직관과 관련될 수 있는지를 따져보면 된다.¹³⁾ 그래서

12) 정신에 그저 떠오르는 것으로서의 표상과 매개적 대상 관련성을 갖는 개념으로서의 표상이라는 구분은 데카르트의 형상적 실재성과 대상적 실재성이란 구분과도 비슷하다. 데카르트에 따르면 표상은 심적 사건으로도 볼 수 있고, 어떤 다른 것을 표상함으로써 의미를 가지는 것으로도 볼 수 있다. 전자로서의 표상은 형상적 실재성(*formal reality*)을 가지며, 후자로서의 표상은 대상적 실재성(*objective reality*)을 갖는다. 그런데 이 구분은 일반논리학의 표상과 초월논리학의 표상의 구분에도 잘 들어맞는다. 일반논리학의 표상은 형상적 실재성만을 가지며, 초월논리학의 표상은 대상적 실재성을 갖는다. 여기에 대한 논의는 Dicker, *Kant's Theory of Knowledge*, Oxford University Press, 2004, p.97을 참조하였다.

13) 개념은 매개적으로 대상과 관련 맺는, 표상의 표상이다. 또한 개념은 여러 표상들을 그 아래에 포함해야 한다. (“그러므로 물체는, 그 아래에 다른 표상들이 포함되어 있고, 그 표상들을 매개로 그것이 대상들과 관계맺을 수 있음으로써만 개념이다.”(A69/B94)) 개념은 개별 표상인 직관과는 달

관련될 직관이 있는 것은 인식이며, 그럴만한 직관이 없는 것은 인식이 아닌 것이다.

그러나 대상과의 관련성은 일반논리학에서는 전적으로 생소한 기준이다. 일반논리학은 표상이 대상과 매개적 관계를 맺든 무매개적인 관계를 맺든지 전혀 상관하지 않기 때문에, 일반논리학이 개념을 다룬다는 말도 무의미하다. 설령 초월논리학에서 다루는 개념을 일반논리학이 다루더라도, 그것을 개념으로서가 아니라 단지 표상으로서만 다룬다. 그래서 일반논리학에서는 ‘소크라테스’, ‘물체’, ‘상겨무리’ 간에 아무런 차이가 없는 데에 반해, 초월논리학의 관점에서는 ‘소크라테스’는 직관이고 ‘물체’는 개념, ‘상겨무리’는 아무것도 아니다.

마찬가지로 일반논리학에서는 판단을 순수한 판단과 경험적 판단으로 구분할 수도 없다. 순수(rein)/경험적(empirisch)의 구분은 감각이 섞였는가 하는 기준에서 이뤄진 구분으로, 대상과 관련해서 세워진 것이기 때문이다.

요컨대, 일반논리학과 초월논리학은 표상이란 재료도 전적으로 다르게 사용한다. 일반논리학에서는 표상이 정신에 떠오르는 관념이란 의미로 사용되지만, 초월논리학에서는 개념으로서의 표상을 다루며, 개념이란 대상과 매개적으로 관련되는 “표상의 표상”이다. 즉, 일반논리학은 다루는 재료부터 대상 관련성을 도외시하지만, 초월논리학은 다루는 재료부터 대상 관련성을 염두에 두는 것이다. 그러므로 두 논리학이 공통적으로 개념이란 재료를 다룬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지금까지 일반논리학과 초월논리학의 차이를 대상 관련성이라는 측면에서 논했다. 일반논리학과 초월논리학은 제공하는 규칙의 영역이 다르기 때문에, 표상이란 재료를 사용하는 방식도 다르다. 일반논리학은 ‘사고 일반’의 필수적 규칙을 제공하는 학문이므로 표상을 재료로 사용한다. 반면에 초월논리학은 ‘대상 인식’의 필수적 규칙을 제공하

리 여러 표상들을 그 아래 포함해야 한다. 따라서 “상겨무리”는 대상과 매개적으로도, 무매개적으로도 관련되지 않으니 개념도, 직관도 아니며, “소크라테스”는 개별 표상이므로 직관이고, “물체”는 여러 표상들, 예컨대 금속, 연필 등을 그 아래에 포함하므로 개념이다.

는 학문이므로 직관과 개념을 재료로 사용한다. 다시 말해, 일반논리학은 모순 없는 사고할 수 있기 위한 규칙을 제공하는 것이 목표인데, 그 사고에 쓰이는 재료는 무차별적으로 표상이다. 이에 반해 초월논리학은 대상 인식이 되기 위한 규칙을 제공할 목표를 가지므로, 대상과 매개적으로 관련되는 개념과 무매개적으로 관련되는 직관을 재료로 삼는다. 그러므로 일반논리학은 대상 관련성에 무관심한 논리학이며, 초월논리학은 대상 관련성의 조건을 따지는 논리학이다.

덧붙여, 일반논리학은 분석판단의 원리도 될 수 없다. 왜냐하면 분석판단과 종합판단의 구분은 이미 대상 관련성을 고려해서 생긴 것이기 때문이다. 다만 분석판단에서는 주어의 대상 관련성만을 고려하지만, 종합판단은 주어와 술어의 대상 관련성을 모두 고려해야 한다는 점에서 대상과 관련되는 방식이 다를 뿐이다. 그러므로 일반논리학이 분석판단의 원리라는 주장도 설득력이 없다.¹⁴⁾

3. 일반논리학의 기원

이 장에서는 부가적으로 일반논리학의 기원을 살펴보고자 한다. 박진은 형식논리학이 기존의 합리론자의 논리학이며, 칸트는 합리론자의 논리학에 비판적이었으니 당연히 일반논리학에도 비판적이었다고 주장한다. 칸트는 일반논리학을 비판하기 위해서 초월논리학을 들여왔다는 것이다.¹⁵⁾ 그러나 나는 박진의 해석에 반대해서, 칸트의 일반

14) 일반논리학이 분석판단의 원리라는 주장은 특히 『순수이성비판』의 “그러므로 동일한 지성이 더구나 그가 개념들에서, 판단의 논리적 형식을 성립시켰던 **분석적 통일**을 매개로 한 그 작용을 통해, 직관 일반에서의 잡다의 종합적 통일을 매개로 그의 표상들에게 초월적 내용을 부여한다.”(B105)에 의거한다. 그러나 여기서 언급된 “분석적 통일”이 분석판단의 원리라고 볼 근거는 희박하다. 이에 대해 필자의 입장을 뒷받침해주는 분석으로는 Allison, H. *Kant's Transcendental Idealism*, p.154를 참고하라.

15) “따라서 형식논리학은 지성의 사고가 자기 자신과의 관계 속에서만 이루어지는 한, 제한된 범위 안의 확실성을 지닐 수는 있지만, 인식의 실질적인 내용이나 대상과의 관계를 도외시한, **한갓 추상적인 기호들의 유희에 불과할 수도 있는 것이다.** 그러나 칸트는 이미 초기 사유 속에서도

논리학이 기존의 합리론자의 논리학과는 전혀 다른 혁신적인 논리학이며 초월논리학과 함께 일반논리학도 철학적 통찰의 결과 생겨난 칸트의 발명품이므로, 칸트가 일반논리학에 비판적일 이유가 없음을 밝히겠다.¹⁶⁾ 그래서 일반논리학의 기원을 근거로 초월논리학이 일반논리학에 우선한다고 주장할 수 없음을 보이겠다.

“논리학이 아주 오랜 옛날부터 이런 확실한 길을 걸어왔다는 사실은, 그것이 아리스토텔레스 이래로 한 발짝도 후퇴하지 않은 것을 보아도 알 수 있다. [...] 더욱이 주목할 만한 것은, 논리학은 현재에 이르기까지 한 발짝도 전진할 수도 없었고, 그러므로 여러 모로 보아 완결되고 완성된 것으로 보인다는 점이다. [...] 그런데 논리학의 경계는 아주 정확히 규정되어 있다. 논리학이란 오로지 모든 사고-그것이 선험적이든 경험적이든, 어떤 근원이나 대상을 갖든 말든, 우리 마음 안에서 우연적인 또는 본성적인 방해에 부딪히든 말든-의 형식적 규칙들을 상세히 서술하고 엄밀하게 증명하는 바로 그런 학문이다.”(BⅧⅧ-Ⅸ, 밑줄은 필자)

인용에서 칸트는 자신을 아리스토텔레스 논리학의 계승자로 자처한다. 칸트가 아리스토텔레스의 논리학을 높이 평가하는 이유는 아리스토텔레스가 논리학은 대상이 아닌 사고의 형식적 규칙들만을 다뤄야 한다고 주장했기 때문이다. 논리학이 경험 대상을 다루지 말아야 하는 이유는 논리학만으로는 경험 세계에 대한 어떠한 지식도 실질적으로 확장할 수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또한 칸트는 논리학이란 학문이 체계적으로 완성될 수 있었던 비결도 바로 논리학의 형식성이라고 주장한다. 따라서 논리학의 범위 제한은 칸트에게 박진이 말한

이런 일반논리학에 기초한 당대의 합리론적 형이상학에 대해 비판적인 문제의식을 지니고 있었고, 아리스토텔레스 이래 **형식논리학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대상관련적인 존재론의 방법으로서의 새로운 논리학, 다시 말해 “인식의 모든 내용을 도외시하지 않는”(B80) 실질적인 논리학으로서 “초월논리학”의 필요성을 느꼈다고 할 수 있다.” 박진, “일반논리학과 초월논리학”, pp.169-170 (강조는 필자).

- 16) 필자의 주장을 강력하게 뒷받침하는 연구로는 MacFarlane의 “What Does It Mean to Say That Logic is Formal?” (Ph. D, Pittsburgh University, 2000)이 있다. 이 논문 4장에서 MacFarlane은 논리학이 형식적이어야 한다는 주장이 칸트에서 처음 나온 칸트의 발명임을 밝힌다.

“기호들의 유희”¹⁷⁾처럼 부정적인 것이 아니라 긍정적인 것이다.

그렇지만 이러한 정신에 반대해, 근대 철학자들, 특히 합리론자들은 논리학을 통해 세계에 대한 지식을 확장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특히 라이프니츠나 볼프, 마이어는 논리학이 세계에 대한 체계적인 지식을 확장할 도구(Organon)로 쓰일 수 있다고 주장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그러한 기획을 실행에 옮기기도 했다.¹⁸⁾ 칸트는 이러한 합리론자의 ‘도구로서의 논리학’에 부정적이었기 때문에 이에 대항해 ‘형식논리학’, 즉 일반논리학을 주장한 것이다. 그러나 칸트는 아리스토텔레스가 실제로 체계화한 논리학이 논리학은 형식적이어야 한다는 아리스토텔레스 논리학의 정신과 부합하지는 않는다고 여겼다. 그래서 칸트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신에 맞게 ‘최초로’ 실제로 형식적인 논리학인 일반논리학을 체계화한 것이다.¹⁹⁾

하지만 칸트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초월논리학을 고안한다. 초월논리학은 사고의 필수적인 규칙을 제공하는 일반논리학보다는 특수한, 경험 세계의 인식에 대해 필수적인 규칙을 제공하는 논리학이다. 물

17) 이와 관련된 박진의 논의로는 각주 15를 참조하라.

18) 마이어는 논리학을 이렇게 서술한다. “§413 이성추리를 통해서 인간은 1) 가능한 한 가장 분명한 확실성에 도달할 수 있고, 2) 오류들에 쉽게 저항할 수 있으며, 3) 새로운 진리를 발견할 수도 있다. 그리고 4) 학문 체계들을 세우기 위해 필요한 모든 증명근거들을 발견할 수도 있다.”(AA 16: 775) 이를 통해 마이어가 이성학, 즉 논리학을 통해 인식을 확장할 수 있다고 여겼음을 알 수 있다. 이 점에서는 라이프니츠도 비슷한 입장을 취한다. 라이프니츠는 논리학이 우리 인식을 확장하는 데에 기여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정도나 개연성의 영역도 다룰 수 있는 새로운 논리학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여기에 대해서는 Leibniz, *New Essays on Human Understanding*, trans. Remnant & Bennett,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1, 483을 참조하라.

19) “아리스토텔레스는 논리학의 아버지라 여길 수 있다. 하지만 그의 논리학은 너무 현학적이고 애매하며, 인간 지성에 큰 가치가 없다. 이 논리학은 변증적이며, 논박의 기술에 필요한 도구이다. 그의 도구는 예리하고, 우리의 모든 논리학 용어는 그에게서 온 것이다. 그렇지 않았다면 그의 논리학은 신화나 신비에 가까웠을 것이며 학교에서는 가르치지 않았을 것이다. 여전히 이 논리학의 주요한 생각은 보존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논리학이 어떤 대상도 다루지 않으며 따라서 쉽게 완성될 수 있기 때문이다.”(AA24: 797)

론 이 논리학도 인식을 확장하는 도구로서의 논리학은 아니지만 말이다. 초월논리학은 경험 세계에서 우리가 지식을 얻기 위해 필요한 지성의 필수적인 규칙을 제공하는 학문으로, 일종의 인식 논리학이자 경험 논리학인 것이다.

결국 칸트는 논리학의 본성에 대한 통찰 끝에 기존의 논리학을 비판해, 사고 형식만을 다루는 일반논리학과 대상 인식의 형식을 다루는 초월논리학이라는 두 논리학을 처음으로 체계화해서 내놓았다. 따라서 일반논리학과 초월논리학은 전적으로 상이한 목적을 가진 별도의 학문체계이다. 그러므로 합리론자가 일반논리학을 견지했다는 주장이나 칸트가 일반논리학을 비판하고 초월논리학이란 대안을 내놓았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IV. 일반논리학과 초월논리학의 관계

마지막으로 필자는 순수 일반논리학과 초월논리학이 우위라는 관점에서 비교될 수 있을지, 만약 비교될 수 있다면 어떤 논리학이 우위인지 논하겠다. 논리학들 간의 우위성 문제는 순수 일반논리학과 초월논리학의 관계를 규명해야만 밝혀질 수 있다.

일반논리학과 초월논리학은 공통적으로 ‘논리학’이다. 그렇다면 일반논리학과 초월논리학이 전체 논리학에서 각각 차지하는 위치를 확인함으로써 두 논리학의 관계를 분명하게 할 수 있을 것이다. 단, 오해를 피하기 위해서 여기서는 순수 일반논리학을 형식논리학이라 부르겠다.

칸트에 따르면, 논리학은 “지성 규칙 일반의 학문”(A52/B76)으로, 지성을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논리학과 지성을 특수하게 사용하는 논리학으로 나뉜다.(A52/B76) 다시 말해, 논리학은 일반 논리학과 특수 논리학으로 나뉜다. 일반 논리학은 “그것들이 없으면 모두지 아무런 지성사용도 있지 않을, 단적으로 필수적인 사고의 규칙들”을 포함하며, “지성이 지향하는 대상이 어떤 것이건 간에 그 대상들의 차이는

돌봄이 없이”(A52/B76) 사고에 필수적인 규칙만을 다룬다. 따라서 일반 논리학은 우리가 앞서 논의한 형식논리학을 포함한다. 이와 비교해 특수한 지성사용으로서의 논리학은 “특정한 대상들에 관하여 올바르게 사고하는 규칙들”(A52/B76)을 포함하는, 대상을 올바르게 사고하는 논리학이다. 초월논리학은 경험 대상들을 순수하게 인식하는 규칙을 다루므로, 특수한 지성사용의 논리학에 속할 것이다. 그러므로 형식논리학은 일반 논리학에 속하고, 초월논리학은 특수 논리학에 속한다.

이제 형식논리학과 초월논리학을 비교해 보자. 앞서 두 절에 걸쳐 충분히 논의한 바에 따르면, 두 논리학은 추구하는 목표와 사용하는 재료가 서로 다르다. 형식논리학은 ‘사고’에 필수적인 규칙을 제공하는 것이 목표이며, 초월논리학은 ‘순수한 대상 인식’에 필수적인 규칙을 제공하는 것이 목표이다. 그리고 형식논리학이 다루는 ‘사고’와 초월논리학이 다루는 ‘순수 인식’은 대상 관련성이라는 점에서 다르다. 사고이기 위해서는, 대상 관련성과 상관없이, 모순되지 않고 생각할 수만 있으면 되지만, 순수 인식이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에 맞춰볼 대상을 가져야 하므로, 일반논리학은 대상 관련성을 가지지 않으며, 초월논리학은 대상 관련성을 갖는다.

따라서 모든 순수 인식은 사고이지만, 모든 사고가 순수 인식은 아니다. 그 이유는 인식이라면 반드시 사고 가능해야 하지만, 사고 가능하다고 해서 반드시 인식이 되진 않기 때문이다. 또한 어떤 것이 사고 되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형식논리학의 규칙을 따라야 하지만, 사고 되기 위해 초월논리학의 규칙을 반드시 따를 필요는 없다. 그러나 어떤 것이 대상 인식이기 위해서는 반드시 초월논리학의 규칙을 따라야 할 뿐만 아니라 형식논리학의 규칙도 반드시 따라야 한다. 대상 인식도 사고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형식논리학의 규칙은 초월논리학의 규칙보다 더 적용 범위가 넓고, 더 필수적인 규칙이다. 다시 말해, **형식논리학은 초월논리학보다 더 보편적이고 필수적이다.** 그리고 더 보편적이고 필수적인 규칙은 더 기초적인 규칙이다. 그러므로 만일 보편성과 필연성이란 기준에 따라 형식논리학과 초월논리학을 비교한다

면, 일반논리학이 초월논리학보다 더 우선적이며, 더 기초적이다.

그러나 과연 형식논리학과 초월논리학의 관계가 ‘우위성’이란 ‘문제’로 제기될 만한지에 대해서는 더 논의가 필요하다. 형식논리학과 초월논리학의 관계는 일찍이 페이튼과 스마트에 의해 논쟁거리가 되었다. 이 논쟁에서 페이튼은 두 논리학의 관계를 ‘논리적 의존 관계’라는 점에서 조명한다. 초월논리학은 형식논리학에 논리적으로 의존한다는 것이다.²⁰⁾ 한편, 스마트나 박진은 어떤 논리학의 원리가 다른 원리를 설명하는 관계에 있는가라는 점에서 조명한다. 형식논리학의 원리를 초월논리학이 설명해준다는 점에서 형식논리학이 초월논리학에 의존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두 논리학 간의 ‘우위성’이 **문제**로서 정당하게 성립되기 위해서는 두 논리학에 공통적으로 적용될 기준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두 논리학의 공통점은 둘 다 논리학으로서 지성 일반의 규칙을 다룬다는 것뿐이다. 두 논리학은 박진이나 스마트가 주장한 것처럼 순수 사고를 다룬다거나 개념을 다룬다는 점에서는 전혀 공통점을 가지지 않는다. 형식논리학과 초월논리학은 목표하는 바나, 다루는 대상이나 재료가 전혀 다른, 전적으로 상이한 체계의 논리학이다. 따라서 논리적인 의존관계가 아닌 다른 기준으로 두 논리학을 비교할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만일 일반논리학과 초월논리학을 비교할 수 있다면, 그에 사용할 유일한 기준은 두 논리학이 모두 지성의 규칙이라는 데에서 출발해야 한다. 이 관점에서 보면, 일반논리학의 규칙은 초월논리학의 규칙보다 더 보편적이고 필수적이라는 점에서 더 기초적이다. 그러나 필자는 두 논리학은 전적으로 상이한 목적에서 체계화된 학문이기 때문에 굳이 우선성이란 관점에서 두 논리학을 비교할 필요가 있는지 회의적이다.

20) Paton, H. J. "Formal And Transcendental Logic", *Kant-Studien* 49, 1957-8, p.247.

V. 맺음말

지금까지 일반논리학과 초월논리학의 본성과 관계가 무엇인지, 일반논리학과 초월논리학이 “우위성”이란 관점에서 비교할 수 있는지, 비교한다면 어떤 의미의 우위성일지에 대해 논의하였다. 이를 통해 일반논리학이 대상 관련성을 전혀 가지지 않으며, 칸트 당대의 합리론자의 논리학도 아니라는 것도 밝혔다. 그리고 일반논리학은 초월논리학보다 더 보편적이고 필수적인 규칙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더 기초적이란 결론을 내렸다.

그렇지만 이 논문에서 필자는 일반논리학과 초월논리학의 본성과 관계를 밝히는 것에만 중점을 두었고, 「초월적 분석학」 서두의 판단표, 범주표와 논리학들의 관계는 다루지 않았다. 이는 일반논리학과 초월논리학의 구분 문제가 판단표 해석을 둘러싸고 집중적으로 논쟁이 된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미진한 면이 있다. 그러나 판단표 해석도 일반논리학과 초월논리학의 개념을 분명히 했을 때 더욱 명쾌해진다는 점을 고려하면, 그 선행작업으로서는 의의가 있다고 생각한다.

투 고 일: 2011. 8. 23.
 심사완료일: 2011. 11. 8.
 게재확정일: 2011. 11. 9.

강은아
 서울대학교 철학과 박사과정

참고문헌

- 박진, 『일반논리학과 초월논리학-칸트의 개념론과 판단론을 중심으로』, 『대동철학』 19, 2002.
- _____, 『개념과 징표-일반논리학과 초월논리학의 관계 연구(I)』, 『철학사상』 22, 서울대 철학사상연구소, 2006.
- Allison, H., *Kant's Transcendental Idealism*, Yale University Press, 2004.
- Buroker, Jill Vance, *Kant's Critique of Pure Reason-An Introduction*,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6.
- Dicker, Georges, *Kant's Theory of Knowledge-An Analytical Introduction*, Oxford University Press, 2004.
- Gensler, Harry J., "Logic and the First Critique", *Kant-Studien* 76-3, 1985.
- Kant, Immanuel, *Kritik der reinen Vernunft*, Felix Meiner, 1998.
- _____, *Critique of Pure Reason*, trans. Paul Guyer & Allen Wood, Cambridge, 2002.
- _____, 『순수이성비판 1』, 백종현 역, 아카넷, 2006.
- _____, *Kants Gesammelte Schriften*, Bd 24, Berlin: Walter de Gruyter, 1966.
- _____, *Kants Handschriftlicher Nachlass* Bd. 16, Berlin: Walter de Gruyter, 1973.
- Leibniz, G. H., *New Essays on Human Understanding*, trans. Remnant & Bennett,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1.
- MacFarlane, J., "What Does it Mean to Say that Logic is Formal?", Ph. D, Pittsburgh University, 2000.
- Paton, H. J., "Formal And Transcendental Logic", *Kant-Studien* 49, 1957-8.
- Smart, Harols H., "Two Views on Kant and Formal Logic", *Philosophy And. Phenomenological Research*, 16-2, 1955.

ABSTRACT

Is Transcendental Logic Prior to General Logic?

Kang, Eun-A

In this essay, I consider the problem of priority between general logic and transcendental logic. Those who insist that transcendental logic is prior to general logic have three reasons for doing so. First, although the two types of logic take the same subject, that is, the form of pure thought, transcendental logic considers this subject more fundamentally. Second, the two types of logic have the same material, that is, concept. Contrary to general logic, however, transcendental logic traces back to the origin of concept. Third, the principle of general logic is analytic unity while that of transcendental logic is synthetic unity. As analytic unity presupposes synthetic unity, general logic presupposes transcendental logic. Therefore, transcendental logic is prior to general logic.

I insist that these grounds are false. These grounds rest upon a false conception of general logic. First, the two types of logic have different subjects. General logic provides the necessary rules of thought in general while transcendental logic provides the necessary rules of cognition, which refers to the object. Second, general logic does not make use of concept. As the distinction between intuition and concept is regarded with respect to the reference to the object, general logic has nothing to do with the reference to the object. Third, the principle of general logic is not analytic unity. Thus, there is no reason to insist upon the priority of transcendental logic to general logic.

I insist that general logic is more basic than transcendental logic according to two criteria. Thought in general includes cognition, but cognition cannot include thought. Thus, cognition must necessarily follow the rules of general logic. However, thought need not follow the rules of transcendental logic. Therefore, general logic has more universal and necessary rules than transcendental logic. Therefore, general logic considers more basic and prior rules than transcendental logic.

Keywords: General Logic, Transcendental Logic, Reference to the Object, Concept, Thought, Cognition, Rules of Understanding

